

라파즈社 브루노 라퐁 사장, 올 전망 낙관

라파즈사의 CEO인 브루노 라퐁은 지난 2005년에 견실한 실적을 거뒀으며 라파즈사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현재의 성과가 아직 라파즈의 독특하고 강한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매우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라퐁 사장은 지난 2/4분기 17%나 증가한 영업이익과 4%의 가격 인상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7% 증가한 23억 5,700만유로였으며 순이익은 5% 증가한 10억 960만유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4년말 70%에서 지난해말 59%로 하락한 가운데 전체 매출액은 11% 증가한 159억 6,900만유로를 시현하였다고 발표했다. 주요부문의 2005년 연간실적을 보면 시멘트부문 매출은 12% 증가한 83억 1,400만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17억 7,000만유로를 시현하였다.

라퐁 사장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 인상이 생산비용 상승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다소 예외가 있겠지만 대체로 강력한 수요증가와 견실한 가격인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의 시멘토스 엘바 알레그레社의 합병을 포함한 M&A의 변화는 9,600만유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2005년 시멘트 판매량은 2004년 대비 3.2% 증가한 1억 2,320만톤이며 올해는 2.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4.5% 증가한 25억 3,200만유로를 시현하였으며 동지역에서의 판매량 3,190만톤은 2004년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북미에서의 시멘트 판매량은 2,120만톤이며 전년대비 1% 정도 증가하였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상황의 호조는 시멘트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고 하반기에 있었던 감소세와 상쇄되었다. 가격 추세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모든 시장에

서 성공적인 가격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획대로 중국, 방글라데시, 멕시코, 모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능력 확충이 이뤄졌으며 증설된 시설은 2006년부터 가동될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창설된 Lafarge Shui On Joint Venture사로 우리는 급성장하는 중국에서 원활한 활동이 가능케 하는 전략적 동반자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파즈사는 올해 역시 비용을 상회하는 가격인상으로 시멘트 수요의 호조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라퐁사장은 효율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 2008년까지 영업수지를 올리는 ‘By one percent’ 운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주당 순이익이 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본투자의 효율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용과 관련해서 라파즈사는 에너지 비용과 관리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며 이전 시기에 실행하고 있는 위험관리정책과 실행프로그램이 이 같은 비용증가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내다봤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년. 3월호)

하이델베르크社, 인도 진출

하이델베르크시멘트사가 인도 서부 뭍바이(뭍바이)에 위치한 Indorama S P Lohia 그룹 소유의 인도라마 시멘트사의 시멘트 분쇄공장을 포함하는 50:50의 지분구성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성사시켰다. 동공장은 지난 2000년에 건립되었으며, 연산 75만톤의 생산능력과 매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델베르크사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인구 1,700만의 뭍바이와 500만의 푸네 등 거대 시장 부근에 위치하여 매우 유리한 시장위치를 점하고 있다. 인도라마사는 또한 뭍바이 시장에 고품질의 슬래그시멘트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뭍바이항 근처에 유통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근 구자라트주에 있는 크링카공장 건설에 대한 승인절

차는 진행중이다. 하이델베르크시멘트사로서는 이번 합작이 높은 인구성장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노력으로 시멘트 소비 및 건설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인도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뭄바이에 위치한 시멘트 분쇄시설은 인도로의 관문입니다. 단계적으로 우리는 매우 유망시장인 인도에서 영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에서의 이익은 우리가 신흥시장에서의 투자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사의 Scheifele 이사회 의장은 말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사의 다음 행보에 관해서는 인도 중남부 지역에서 합작과 기업매수를 목적으로 생산업체들과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멤버인 Gauthier은 향후 3년 동안 인도에서 500 내지 1,0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기업 인수를 시도하되 이후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좀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더라도 인수 가격을 생산능력 기준으로 톤당 80~120달러선에서 회사의 목표가치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년 4월호)

대만, 치아신사 매출 급감

대만의 치아신 시멘트사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99.2%나 급감한 이후 수출부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의 시멘트업체는 매출액은 11.6% 증가하였지만 순이익은 지난 2004년 1,469만달러(미화기준)에서 10만 3,000달러로 급감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료비용 급등과 중국 본토의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시멘트시장은 바닥에 이르렀고 회복은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되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비용은 지난해 유연탄가격 19.9%, 전력비용은 9.1% 증가한 것이 외엔 큰 변화요인이 없으므로 올해 안정될 것이다”라고 Jason Chang 대표이사는 밝혔다. 또한 올해 수익의 80%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수출부문이 호조를 떨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4년에 매출총이익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4%에서 지난해에는 57.4%로 급증하였다. “수출부문은 우리 회사 수익의 열쇠입니다. 치아신사의 수출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2008년 북경 올림픽 준비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시멘트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Chang 대표이사는 언급했다. 그렇지만 시멘트산업의 합병과 구조조정은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치아신 그룹은 4,000~6,000만달러 규모의 M&A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능한 대상과 협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계획에 따른 협상은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hang 대표이사는 말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년 4월호)

홍콩, CR시멘트사 생산능력 증대

홍콩의 China Resources Holdings 그룹의 CR시멘트사는 지난해 고비용으로 인해 이익이 85%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동안 18억 홍콩달러를 투입,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동사는 순이익이 생산비용 상승과 낮은 판매가격으로 지난해에 1억 2,530만 홍콩달러로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멘트 생산능력을 2008년까지 770만톤에서 1,500만톤으로 증설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기간 레미콘 생산능력은 440만m³에서 1,000만m³로 증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자금은 주로 은행대출을 이용, 2008년까지 18억 홍콩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비록 중국에서는 부동산 건설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동사는 이러한 증설계획이 향후 수년간 시기적절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CR시멘트사는 지난해 340만톤의 시멘트와 246만m³의 레미콘을 판매하였다. 순이익은 유연탄 구매가격의 29% 상승으로 지난 2004년 26.1%에서 지난해 19.7%로 감소하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4월호)

시멘스社, 합병효과로 1분기 실적 급증

멕시코의 시멘트 거대기업인 시멘스사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간 4억 4,400만달러에 비해 14% 증가한 5억 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동사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올해 총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52%나 급증한 39억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영업이익은 26% 상승한 5억 5,600만달러를 시현했다. 순부채는 2억 200만달러 감소한 84억 6,300만달러인데 지난해 동기대비로는 19억 7,200만달러가 감소한 것이다.

헥토르 메디나 기획재무부문 부사장은 “우리는 1분기 합병효과가 기대보다 더 강력한데 대해 큰 용기를 얻었다. 우리의 총 EBITDA는 29% 증가했고 순매출액은 52% 증가했다. 1분기 EBITDA가 주목을 끌만큼 개선된 이유는 주로 우리의 사업부문의 핵심시장에서 높은 국내 판매량 뿐만 아니라 RMC社의 영업부문을 합병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영업은 지난해 1분기 6억 8,200만달러보다 19% 증가한 8억 1,400만달러의 순매출액을 기록하였다. EBITDA는 전년에 비해 15%나 증가한 3억 2,300만달러를 시현하였으며 시멘트 판매량은 10% 증가, 레미콘 출하량은 2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한 4억 1,2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EBITDA는 13%가 증가한 1억 3,000만달러를 시현하였으며 국내 출하량도 13%가 증가하였다. 1분기 조업일수가 늘어 시멘트출하가 9% 정도 증가하였다. 레미콘 출하량은 조업일수 증가와 라파즈와의 합작종료에 따른 Readymix Asland社에 대한 합병으로 16%의 증가세를 보였다.

영국에서는 순매출액 및 EBITDA 모두 각각 153% 증가한 4억 5,300만달러, 82% 증가한 3,20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증가세는 주로 합병효과가 지난해에는 3월 한달에 그쳤지만 올해는 3개월간의 실적이 반영되어서 증가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또한 다른 유럽시장에서의 152% 늘어난 5억 7,800만달

리의 순매출액 증가원인이기도 하다.

중남미와 카리브연안국들의 매출액은 19% 증가한 3억 4,7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는 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8,700만달러를 시현하였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매출액은 77% 증가한 1억 6,1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EBITDA는 11% 증가한 3,9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아시아에서는 34% 증가한 8,100만달러의 매출액과 11% 증가한 1,500만달러의 EBITDA를 시현하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 5월호)

말레이시아, 라파즈사 CDM 프로젝트 추진

라파즈사는 말레이시아 2개 공장에서의 화석연료에 대한 생물자원 에너지로 대체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계획을 교토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CDM 실무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4월 7일에 승인된 동계획은 말레이시아 및 프랑스 당국에 의해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 모로코의 테투안 시멘트공장에서 처음으로 풍력발전으로 공장 가동을 한 이래 라파즈사에게는 두 번째 CDM 계획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 계획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수입석탄의 비율을 PKS라는 생물자원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PKS는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산업에서 나오는 폐산물이며 현재 키른에서의 열연료로 5%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같은 PKS로 인해 라파즈사는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에 상당하는 6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가능케 했다. 게다가 화석연료는 보존중이다. PKS는 또한 환경과 경제에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이 계획의 등록은 CDM 프로세스의 최종단계이다. 현재 라파즈사는 인도와 브라질에서 두개의 CDM 프로젝트를 개발중에 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5월호)